

금융권은 SKT 해킹사고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 최근 SKT 유심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명의도용에 의한 금융사고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금번 해킹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① 유의사항 전파, ②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안내, ③ 금융사고 신고 센터 및 비상대응반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 4.30.(수) 오전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주재로 비상대응회의 개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각 금융협회 등 참여) 예정

I 개 요

- 최근 SKT 유심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유출된 정보가 악용되어 명의도용에 의한 금융사기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비자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금번 해킹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방침입니다.

Ⅱ SKT 해킹사고 관련 금융권 대응 현황

[① 부정 금융거래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전파]

□ 금융당국은 4.24.(목) 유심(USIM) 복제 등을 통한 부정 금융거래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금융회사에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을 취하도록 유의사항을 전파하였습니다.

○ 금융회사는 동 안내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면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 대체 인증수단 적용, SKT 문자인증 일시 중단 등

[참고] 금융회사 유의사항 안내('25.4.24.) 주요내용

- ① 기기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금융앱의 경우 기기정보 변경 고객에 대한 추가인증 또는 이상금융거래탐지(FDS) 등을 통한 면밀한 모니터링 강화
- ② 금융서비스 중 휴대폰 본인인증, 문자메시지 인증만으로 인증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추가 인증수단 적용
- ③ 고객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갑자기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통신사, 금융회사 등에 연락하도록 소비자 안내

[②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안내]

□ 금융권은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동 서비스는 모든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개설 및 대출 실행을 일괄 차단하는 서비스로, 자기도 모르게 발생하는 부정 금융거래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 SKT 해킹 이후 안심차단서비스 신청현황

- ◇ SKT 해킹사고 이후, 금융사기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신청이 크게 증가
 - 해킹사고 이후 일주일 간(4.22.~4.28.)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약 35만명,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약 45만명의 소비자가 서비스를 신청
 - 특히 해킹사고 이후 전체 신청 인원 중 40대 이하의 비중이 약 65%를 차지하는 등 청년층의 신청이 급격하게 증가*

* 해킹사고 이전에는 40대 이하의 비중이 약 22%를 차지

(참고) 안심차단서비스 일별 가입 신청 추이

(단위 : 천명)

구분	~4.21. (일평균)	4.22.	4.23.	4.24.	4.25.	4.26.	4.28.	누적
비대면 계좌개설	4.5	3.2	4.7	6.0	9.6	34.4	292.3	507.4
여신거래	2.3	3.2	4.4	5.8	9.9	22.2	405.7	880.3

[③ 금융사고 신고센터 및 비상대응반 운영]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해킹 관련 금융사고 신고센터* 및 비상대응반 설치·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 금융감독원 통합콜센터(☎1332)를 통해 금번 SKT 해킹과 관련된 금융사고 피해를 접수 중

※ 4.30.(수) 오전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주재로 비상대응회의 개최 예정(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각 금융협회 등 참여)

III 대국민 당부사항

-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해킹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 국민 여러분께서는 과도한 우려나 불필요한 오해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피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유의사항 안내와 필요한 조치를 따라 주시기 바라며,
- 특히,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 ▶ 금융거래 본인인증 수단으로 이용되는 자료*를 휴대폰에 저장 금지
 - * 주민등록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
- ▶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통합신고센터(☎112)에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서기관	김영민 (02-2100-2573)
	금융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유은지 (02-2100-2974)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위충기 (02-3145-7120)
	디지털금융총괄국	담당자	팀 장	이수인 (02-3145-7125)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김형원 (02-3145-8020)
	은행감독국	담당자	팀 장	송명준 (02-3145-8030)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박상만 (02-3145-7550)
	여신금융감독국	담당자	팀 장	김범준 (02-3145-7447)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노영후 (02-3145-7460)
	보험감독국	담당자	팀 장	황기현 (02-3145-7450)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정재승 (02-3145-8150)
	금융사기대응단	담당자	팀 장	김태근 (02-3145-8130)

붙임1

안심차단서비스 개요 및 가입방법

- (개요)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사전에 특정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모든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수시입출식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일괄 차단
 -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담보대출, 카드론, 할부·리스, 서민대출 등 모든 개인 대출을 일괄 차단
- (가입·해제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
 - 서비스 해제는 기존 거래 여부와 관계 없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가능
 - 서비스를 해제하면 곧바로 해당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필요한 금융거래 이후에 서비스에 재가입하는 것도 가능

< 모바일 앱 가입화면 예시 >

①뱅크홈 > 우측 하단 전체 메뉴 클릭	② '설정/인증' 클릭	③ '보안서비스' 클릭	④ 안심차단서비스 가입하기
			

나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으로 예방하세요.



| 서비스 신청방법



금융회사 방문
거래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비대면 신청
금융결제원의 아카운트 인포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 또는 거래중인
은행의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

| 서비스 해제방법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사기범 등의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을
동해서만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전 금융권의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개설을 사전에 일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보이스피싱지킴이 QR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



MG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우정사업본부

www.fss.or.kr

민원상담전화 금감원콜센터

1332

나도 모르는 명의도용 대출 피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신청으로 예방하세요.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이란?
 소비자의 선택으로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차단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적용대상
신용카드 발급, 신용대출, 담보대출, 할부·리스, 서민금융

기존에 거래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안심 차단 신청하세요.

※ '24.10월부터 거래중인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가능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로 접속하여 보이스피싱자금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7 -